



• 위치 / 경기 파주, 양주, 연천 • 높이 / 675m

감악산

감악산은 오랜 군사통제구역으로 있어서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하고는 등산객이 별로 없다. 삼국시대부터 명산으로 알려져 온 감악산은 백두산으로부터 시작해서 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이 추가령에서 서남쪽으로 가지를 쳐서, 적근산-대성산-광덕산-백운산-국망봉-청계산-운악산-수원산-국사봉-죽엽산-축석고개-천보산-불곡산-호명산-한강봉-사패산-도봉산-노고산-현달산-탄현동의 고봉산-교하의 장명산으로 이어지는 한북정맥(漢北正脈)이 한강봉에서 갈라져 나와 은봉산-노아산-노고산-감악산-중성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끝자락에 있는 산으로 가평의 화악산, 개성의 송악산, 과천의 관악산, 포천의 운악산과 더불어 <경기5악>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감박산>이라고도 불리운다.

바위 사이로 검은빛과 푸른빛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다하여 감악(紺岳), 즉 감색 바위산이라 불렀다 한다.

산 정상에는 비석 글자가 마멸된 <비뜰대왕비>가 서 있는데 북한산 순수비와 형태가 흡사하다 하여 <진홍왕순수비>라고 주장하는 설과 당나라 장수 설인귀가 이 고장 출신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설인귀비>라는 속설이 각각 전한다.

신라시대에 나당연합군으로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공을 세운 이 고장 주월리(舟月里) 태생 설인귀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 이 비를 세운 것이며 산아래 설마리(雪馬里), 마지리(馬智里), 무건리(武建里)라는 동네 이름도 설인귀 장군과 관련이 있다는 설과, 신라 진흥왕 시대에 영토표시를 위해 세운 북한산 순수비와 같은 성격의 비가 아닌가 추측된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애초부터 아무런 글자가 없었다는 설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서쪽으로는 개성 송악산이 아스라히 보이고 구불 구불 흘러서 <칠중하> <호로하> <호로탄>이라고도 불리었던 임진강 너머로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야트막한 산들이 울망줄망 흩어져 있는 모습이 정겨워 보인다.

이 산줄기에서 뻗어 내려간 중성산에는 <칠중성>이, 그 앞 주월리에는 <옥계토성>이,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에는 <호로고루성>이, 미산면 동이리에는 <당포성>이, 그런가하면 왕징면 무등리에서는 고구려군의 군량미로 쓰였던 쌀 수백 가마니 분량의 창고 터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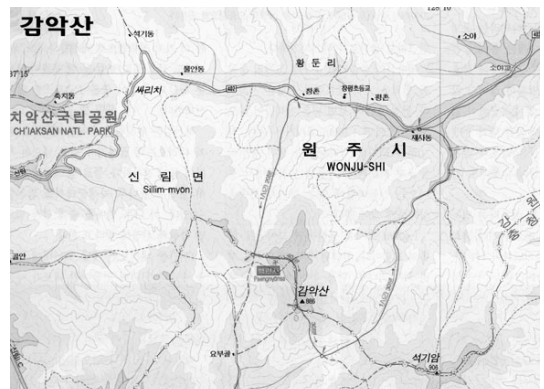
미산면 백석리에는 임진왜란 개전 당시 부산성에서 장렬하게 산화해간 <정발장군>이 고향땅에 돌아와 묻혔고, 백학면에는 <비격진천퇴>를 사용해서 무공을 세운 <박진장군>의 묘가 있으며, 고랑포리의



경순왕릉 옆으로는 1968년 1.21사태를 일으킨 북한 124군부대 소속의 무장공비 31명이 얼어붙은 임진강을 걸어서 건너와 파주 법원리-앵무봉-노고산-비봉 승가사를 지나 청와대로 <박정희 모가지를 따리> 침투를 한 루트이고, 거기서 8km만 가면 <제1땅굴>이 발견된 지점이다.

여름철의 감악산의 운계폭포는 물이 불어 경관이 아름답고, 가을에는 도토리, 상수리 나무등이 울긋불긋하다.

산행은 별 무리가 없으며 매표소에서 범륜사-갈림길-정상-갈림길-운계폭포-매표소까지 3시간 가량 소요되며, 산림욕장엔 명상의 숲, 만남의 숲이 있



어 산행 중간에 쉬어 갈 수가 있다.

감악산은 임꺽정과 관련이 있는데, 운계폭포 앞에는 임꺽정 소가 있으며 정상에는 임꺽정 봉이 있다. 또한, 임꺽정이 관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숨어 지낸 임꺽정 굴이 있다. 산 속에는 범륜사, 수월사, 봉암사 등 옛 사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 산행기점 찾기

▲ 범륜사코스

범륜사 입구에서 150m정도 올라가면 거북바위 휴게소와 입산통제소가 있다. 차량을 이곳에 주차해도 되고 가파른 경사길을 400m정도 올라가면 좌측으로 은계폭포가 보이는 넓은공터에서 출발해도 되는데 겨울철에는 차량 통행이 어렵다.

시멘트 포장도로를 2분만 올라가면 해탈교에 도착하고 범륜사이다. 범륜사를 지나면서 본격적인 등산로로 접어드는데 돌길을 따라 계곡을 건너 8분쯤 가면 숫가마터에 도착을 하고 4분을 더가면 묵은밭에 도착을 한다. 여기까지는 돌길이다.

이곳에서 좌측으로 오르면 능선을 따라 까치봉, 정상으로 갈 수 있고 직진을 하면 계곡길로 약수터를 지나 정산과 임꺽정봉 중간 안부에 도착을 한다. 바로 위에 만남의 숲에서 우측으로 오르면 능선을 거쳐 임꺽정으로 갈 수 있다.

▲ 종주코스

범륜사 입구에서 적성면 방향으로 조금 내려가면 감악산휴게소에서 소맷골에서 선고개로 오른 후 까치봉으로 오른 후 정상 임꺽정봉 다음봉을 지난 다음 540봉, 460봉을 숫가마터로 내려오거나 계속 진진을 하여 개구리바위, 병풍암을 거쳐 거북바위 휴게소로 내려올 수 있다.

※ 등산코스

▲ 1 코스(약 3시간 소요)

범륜사 입구 → 범륜사 → 숫가마터 → 만남의 숲 → 감악산수 → 능선안부 → 정상 → 능선안부 → 임꺽정봉 → 만남의 숲 → 범륜사 → 범륜사입구

※교통

▲ 서울 불광동에서 6:00-22:30까지 15분 간격 운행하는 적성행 직행버스이용 (1시간 20분 소요)후 적성에서 범륜사까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이용(10분 소요)

▲ 의정부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25번 시내버스 이용, 범륜사입구 하차(1시간 소요)

▲ 자가 운전시 : 서울에서 1번 국도를 이용 문산까지 이동한 후 37번 국도로 적성시내를 지나치자마자 나타나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한 후 349번 도로로 5-10분 정도만 가면 범륜사 입구간판이 나타난다. 또는 동두천에서 349번 도로에 진입한 후 이 도로만 계속 타고 가면 설마치고개를 넘으면 범륜사 입구에 도착한다.

※주변볼거리

▲ 범륜사

원래 감악산에는 감악사, 운계사, 범륜사, 운림사 등 4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현재는 모두 소실되었고, 지금의 범륜사는 1970년에 옛 운계사 터가 있던 곳에 재창건한 사찰이다.



절 입구에는 해탈교라는 작은 다리가 있고 절 뒤쪽으로는 산신각이 있는데 그 안에서 시원한 석간수가 흘러나온다. 절 바로 밑에 높이 200여m에 달하는 운계폭포가 있다.